

2024년 지방양회 점검

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올해 양회(3.4~3.5)를 앞두고 개최된 지방양회(1.6~1.31)에서 각 지방 정부는 '23.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내용에 기반, 각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를 제시함. 31개 성시의 가중평균 성장을 목표는 전년도 목표치(5.63%) 대비 0.22%p 하락한 5.41%를 설정

- **기본방향** : ① 안정적 성장, 신뢰 회복, 정책실행력 확보, 고용안정 등의 정책목표는 대체로 전년도와 유사. 올해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삼대공정(三大工程)' 특히 강조
- ② 리스크 요소로서 부동산과 지방정부부채, 중소기업기구 등 3가지 영역을 위험관리 대상으로 제시한 점 주목
- ③ 기타 각 지방정부별 경기진작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목표를 발표(소비·내수 활성화, 첨단제조업 전환 등)
- **발전수단** : 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以进促稳)'의 정책방향(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주제)에 따라 3가지 분야(과학기술발전, 내수확대, 개혁촉진*) 강조
- * 국유기업 개혁, 요소시장의 시장화기제 촉진, 재정과 세제 제도 개혁, 대외개방 확대
- ② 삼대공정(三大工程*)을 통한 경기활성화 촉진
- * 보장성주택 건설, 도시내 낙후지역인 성중촌(城中村) 정비사업, 공공인프라 건설
- ③ 가계 소비영역 복원 정책(이구환신(以旧换新)*, 가전하향(家电下乡)**) 등을 통한 소비와 내수진작 추진
- * 같은 종류의 쓰던 제품을 맡기고 할인된 가격으로 새 상품 구매
- ** 보조금 지급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對 농촌 보급
- **경제성장** : 31개 성시중 4개 지역(북경, 천진, 요녕, 절강)은 작년대비 0.5%p 상향. 16개 성시는 작년대비 하향, 11개 성시는 동일
- GDP : 31개 성시 가중평균 목표 : 5.41% (작년대비 0.22%p ↓)
 - 고정자산투자 : 작년대비 1.44%p ↓ ○ 소매판매 : 작년대비 0.48%p ↓
 - CPI : 작년과 동일한 3% ○ 실업률 : 작년과 동일한 5.5%

표 1. 지방정부별 GDP 성장 목표

(31개성시의 가중평균 목표 : 5.41%)

목표구간	해당 지방정부
4%~5% (11개)	북경, 상해, 천진, 강소, 산서, 강서, 산둥, 광둥, 광서, 운남, 청해
5%~6% (18개)	화북, 요녕, 길림, 흑룡강, 절강, 안휘, 복건, 하남, 하북, 호북, 호남, 중경, 사천, 귀주, 섬서, 감숙, 내몽고, 녕하
6%~7% (1개)	신장
7%~8% (1개)	해남

자료 : wind, everbright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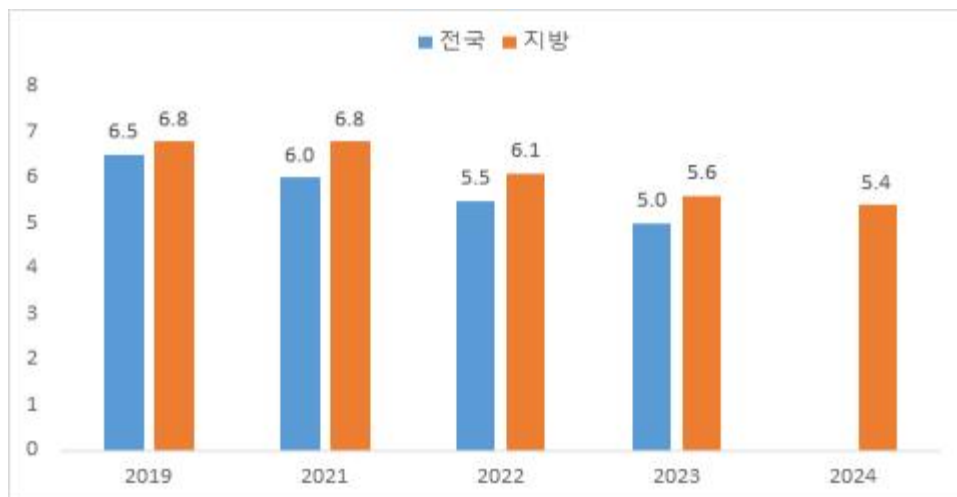
- 중국전체 GDP의 약 45%를 점하는 6대 경제성시*의 올해 목표치는 5% 이상으로 가중평균목표치 0.01% 상승**

* 광둥, 강소, 절강, 산둥, 하남, 사천

** 23년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규모 경제규모 지역의 선도적 역할 강조 반영 분석

- 통상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대비 성장목표치를 상향설정하는데, 2020년을 제외한 코로나기간(21~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중평균 목표치는 0.6%~0.8%p의 편차를 보임.
- 소비부진과 투자감소로 내수회복 정체가 지속되고,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등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를 감안, 각 지방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전국(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GDP 성장 가중평균 목표비교(%)



자료 : wind

주. 2020년의 경우 지방양회는 Covid-19前 개최되었으며, 해당년도의 전국양회는 Covid-19後 개최 (성장목표치 미설정)

□ 주요 분야의 각 지역별 전략목표

○ 소비분야

- 소비성향이 강한 경제발전 지역 위주로서 국내제품 구매와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는 신상품 구매 선도지역의 역할 강조 : 상해, 강소, 절강, 복건
-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 실행으로 소비 촉진 : 북경, 산서, 산둥, 해남, 중경, 광둥, 저장, 귀주
- 주거안정이 소비촉진의 안전판 판단, 관련 정책 추진 : 제남, 청도(기존 대출횟수와 상관없이 금리우대 및 인하, 은행담보부물건의 양도가능 조치 등으로 프리미엄 주택 건설 활성화)
- 관광여행 위주의 소비 활성화 : 요녕, 감숙, 운남, 사천, 녕하, 광둥, 하남, 해남

○ 산업분야

- 제조업 : 기술제고와 생산설비 개조를 통한 디지털화, 친환경산업 전환(복건, 산둥, 광서, 중경, 안휘, 광둥)
- 부동산, 인프라 : 극심한 투자정체 해소를 위한 ‘삼대공정’ 적극 추진(전체)

○ 기타

- 요소자원의 시장화개혁 : 안휘, 호남, 산둥
- 재정 및 세제와 금융체제 개혁 : 감숙(중소금융기구 문제점 개선 강조)
- 해상풍력발전, 문화여행소비 확대를 통한 투자와 관련 산업 유치 : 해남
- 대외개방가속화 : 상해(전기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 영역의 개방 확대)

□ 2024년 지방양회 점검

- 이번 각 지방정부가 설정한 전략목표들은 대체로 2023년말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기조와 일치함.
- 기본 기조는 안정적 성장과 신뢰확보, 리스크 방지와 구조개혁 촉진이며, 이를 달성할 수단으로 내수확대, 신산업과 과학기술발전, 부문별 개혁촉진 등 세부목표를 설정함.
-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방정부의 공통된 목표점은 ‘삼대공정(三大工程)’ 과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稳地产), 인프라투자확대(扩基建), 소비촉진(促消费) 추진임.
- 다만,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구 건전성 등 당면 현안으로 성장 역점보다는 내부 리스크 예방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절박함이 작년 대비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0.22%p↓)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이를 감안한 올해 양회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5.0%(4%중반~5%초반) 내외에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 2024년 지방양회 주요 키워드와 전략목표

붙임

2024년 지방양회 주요 키워드와 전략목표

구분	내용
삼대공정 (三大工程)	소비와 투자정체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전략목표로 제시 ^{주1} 함에 따라 이번 지방양회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공공시설인프라 등 건설관련 항목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신뢰회복	소비와 투자의 극심한 정체 지속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실행(以旧换新, 家电下乡 등)과 ‘공급측면의 품질개선’ 강조 투자의 경우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여전 판단에 따라 ‘유효한 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확보와 공급측 구조개혁 가속화
중대개혁 (민영발전)	①국유기업개혁과 ②민영기업 발전 촉진이라는 ‘견고한 두가지 목표점(两个毫不动摇 ^{주2})’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 설정 (천진:지방정부용자기구(LGFV)의 시장화 개혁, 요녕:중앙기업(央企)분공사의 독립법인 자회사 전환, 안휘:중점사업영역의 전략적 구조개혁과 전문화 도입으로 국유자본의 신흥산업투자 집중 추진, 귀주:산업기금지원프로젝트의 민간투자비율 40%이상으로 조정, 안휘:기초시설과 공공인프라건설에 민영기업 참여 독려)
요소자원 시장화	통일적인 대시장 건설을 통해 요소자원의 시장화 조치 추진(안휘, 호남, 산둥) 석탄 등 에너지 상품 거래시장 개선으로 시장가격형성 건전화 추진(산서)
체제개혁 위험관리	지방중소은행 개혁으로 광서농상연합은행 설립(광서) 농상은행 등 금융기구 개혁(산둥) 지방정부채무 경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 관리감독 체계 마련, 중소금융기구의 전통적 문제점 개선(감숙)
대외개방 지속확대	자유무역시범구인 임항신편구(临港新片区 ^{주3}) 건설 등 외자유치와 신산업 발전 선도지역으로 푸둥신구를 선정, 국제표준화경제무역규범총괄방안 마련, 전기통신, 금융, 의료분야 개방확대(상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분야의 전면 무관세지역 완성(해남) 이우지역에 신 국제무역종합개혁시범구 선정 추진(절강)

주1. 2023.4월과 7월의 정치국 회의,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요 경기진작 수단으로 제기함.

주2.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이라는 뜻으로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중 하나로 강조함.(공유제경제(국유)를 주로하여 공고히 발전시키되, 비공유제경제(민영)의 발전을 지속 장려, 생산요소의 평등한 사용과 공평한 시장경쟁 참여 보장)

주3. 상해시 푸둥신구 동남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임항신편구(2019.8월 지정)는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 작업을 선도하고 상해시의 신성장 및 장삼각 일체화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정된 지역임. 성숙한 투자·무역 자유화와 편리화 시스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5%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달성한다는 발전목표를 세움.